

형방지황탕으로 호전을 보인 소양인 망음증을 치료한 증례

박혜선* · 주종천* · 김형순* · 배영춘*

Abstract

A Case Study of the Shaoyangin Mangyin Improved with Hyeongbangjiwhang-tang

Park Hye-sun* · Joo Jong-cheon* · Kim Hyoung-sun* · Bae Young-chun*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A Case Study of the Shaoyangin Mangyin Improved with Hyeongbangjiwhang-tang

Mangyin-disease is important syndrome in Shaoyangin' pathology taking diarrhea, general weakness. We treated a 28 years old female patient who complained general weakness, diarrhea, and weight loss .

She responded well to treatment with Hyeongbangjiwhang-tang . So report it.

Key Words : Hyeongbangjiwhang-tang, Mangyin-disease, Shaoyangin

I. 緒 論

亡陰이란 泄瀉를 주증상으로 나타내는 少陽인의 독특한 질환군으로 少陽傷風證, 結胸證과 같은 屬이되 重證으로 판단해야 한다. 평소에 몸의 밖이 차고 泄瀉를 많이 한 소양인이 병이 생기면 亡陰證이 되기가 쉽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 補陰을 해야 한다. 이제마는 수세보원에서 少陽人 亡陰證에 대하여 “옛 의

사들이 머리는 차서 아픈 경우는 없고 배는 더워서 아픈 경우는 없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다. 어째서 그런가 하니 少陰人은 원래 찬 기운이 많기 때문에 머리 아픈 것도 역시 더워서 아픈 것이 아니고 차서 아픈 것이며, 少陽人은 원래 더운 기운이 많기 때문에 배가 아픈 것도 역시 차서 아픈 것이 아니라 더워서 아픈 것이다. 옛 의사들이 또한 말하기를 땀을 많이 흘리면 亡陽이 되고 泄瀉를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학과
교신저자: 박혜선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543-8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062-670-6427 E-mail) medic73@hanmail.net

많이 하면 亡陰이 된다 하였는데 이 말은 맞는 말이다. 어째서 그런가 하니 少陰人은 비록 찬 기운이 많다고 하나 그러나 陰이 盛하여 陽과 다투어 敗한 陽이 밖으로 달아나게 되니 煩熱이 나며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 이것을 일컬어 亡陽病이라 한다. 少陽人은 비록 더운 기운이 많으나 그러나 陽이 盛하여 陰과 다투어 敗한 陰이 안으로 도망가니 찬 것을 두려워하고 泄瀉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일컬어 亡陰病이라 한다. 亡陽病과 亡陰病은 藥을 쓰지 않으면 반드시 죽고 급히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¹⁾ 고 하였다.

이에 본인은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에 體重減少, 虛勞, 泄瀉를 主訴로 하는 少陽人 患者에게 藜蘆白朮散 加味方을 3일 투여 후 증상이 더욱 심해진 경우 少陽人 亡陰證으로 診斷, 荊防地黃湯을 투여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증례

1. 환자

정** F/ 28

신장: 158cm 체중: 38kg

혈압: 90/60

2. 발병일

2001년 가을

3. 주소증

泄瀉(軟便), 體重減少, 無氣力

4. 과거력

無

5. 현병력

2001년 가을부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無氣力, 泄瀉와 體重減少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검사상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고 치료가 호전되지 않아 2002년 8월에 본원에 내원하였다. 내원당시 발병전 45kg 이었던 체중이 38kg으로 감소한 상태였다.

6. 體質鑑別

QSCCII : 소음인

직업 : 대학원생, 임용고시 준비중

體型: 왜소한 몸집으로 상하체는 비교적 균형 있는 체형, 기육은 없는 편

容貌 : 날카로운 인상, 예민하게 생겼다.

性質 : 예민하며 성격은 급한 편, 화나면 다혈질이 됨, 꼼꼼한 편이다.

皮膚: 박, 활

脈: 沈細滑

舌: 舌淡紅苔薄白

腹診 : 中脘部位 壓痛, 拒則喜按

寒熱: 喜溫

汗出: 少汗

素證: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다. 식욕은 좋은 편이며 신경쓰면 소화 안 되는 편이다.

大便: 설사, 밀가루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먹으면 설사가 심해진다.

小便: 양호

睡眠: 양호

7. 서양의학적인 검사소견

1) 흉부 X- 선 검사, 심전도 검사, S상 결장 검사, 대변검사, 대변 배양검사 : Normal

2) 일반혈액검사 : Normal

3) 일반생화학검사 : Normal

8. 치료경과

2002년 8월 1일 본원에 내원한 당시 無氣

1) 古醫有言頭無冷痛腹無熱痛此言非也何謂然耶少陰人元來冷勝則其頭痛亦自非熱痛而即冷痛也少陽人元來熱勝則其腹痛亦自非冷痛而即熱痛也古醫又言汗多亡陽下多亡陰此言是也何謂然耶少陰人雖則冷勝然陰盛格陽敗陽外逆則煩熱而汗多也此之謂亡陽病也少陽人雖則熱勝然陽盛格陰敗陰內逆則畏寒而泄下也此之謂亡陰病也亡陽亡陰病非用藥必死也不急治必死也

力, 泄瀉, 體重減少를 호소하였다.

식사량은 보통사람의 1/2정도이며, 泄瀉는 軟便으로 3-4회/1일 보았다.

無氣力 증상은 오전에 심하였고, 체중은 45kg에서 38kg으로 감소하였다.

脈은 沈細滑하며, 舌淡紅苔薄白하여 脾陽虛로 인한 泄瀉로 진단하여 蓼芩白朮散加味方を 투여하였다.

2002년 8월 6일 상기약을 3일분 복용후 腹痛과 함께 심한 水樣便을 호소하였다.

下腹部 痛症과 腹鳴을 동반한 水樣性 泄瀉를 하였으며, 횡수는 5-6회/1일이었다.

설사 후 全身 無力感이 심하여졌으며,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다.

또한 煩熱感을 호소하였으며, 실제 체온상 정상이었다.(36.5도)

脈은 沈細數滑, 舌苔는 舌淡紅苔薄黃하여 소양인 亡陰證으로 다시 진단하여 荊防地黃湯을 2일분 투여하고 다시 내원하라고 하였다.

2002년 8월 10일 荊防地黃湯을 복용한 후 대변은 여전히 水樣便이었으나, 횡수는 3-4회로 줄었으며, 下腹部 痛症과 腹鳴症狀도 감소하였다. 煩熱感은 소실되었으며, 전신무력감은 여전하였으며, 식사량도 1/2공기로 비슷하였다.

脈은 沈細滑, 舌淡紅苔薄白하였으며, 荊防地黃湯을 다시 10일분 투여하였다.

2002년 8월 22일 대변양상이 水樣便에서 軟便으로 바뀌었으며, 횡수는 2-3회/1일로 줄었다. 泄瀉에 동반된 腹痛과 腹鳴증상은 소실되었다. 無氣力 상태는 약간 호전된 상태였으며, 식사량은 증가하였다. 脈은 沈細滑, 舌淡紅苔薄白하였다. 荊防地黃湯을 10일분 투여하였다.

2002년 9월 2일 大便은 정상변 상태였으

며, 1-2회/1일이었다. 소화는 되지 않았을 때 가끔씩 軟便을 보았다. 무기력증상은 오전에 약간 느낄 수 있었다. 체중은 39 kg으로 증가하였으며, 腹診시 中脘部位 壓痛이 소실되었다. 脈은 沈滑하고 舌紅苔薄白하였다. 다시 荊防地黃湯을 10일분 투여하였다.

2002년 9월 14일 大便은 정상이었으며, 無氣力 증상도 거의 호소하지 않았다. 식사량은 2/3 공기로 늘었으며, 체중은 40kg으로 증가하였다. 荊防地黃湯을 10일분 투여하였다.

2002년 10월 7일 大便은 정상으로 1회/1일정도 배변하였으며, 無氣力증상은 소실되었고, 체중은 41kg으로 증가하였다. 설사가 다시 발생하면 내원하기로 하고 치료 종료함

Ⅲ. 고찰 및 결론

少陽人이 평소에 表寒하며 下多한 사람이 病이 생기면 亡陰證이 되기 쉽다.

亡陰證은 少陽人이 더운 기운이 많아 陽이 성하여 아래에서 陰과 다투니, 陰이 陽으로 막히게 되어 膀胱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背脊로 올라가서 胸膈속으로 들어가니 腸胃가 찬 것을 싫어하여 泄瀉를 하게 되는 증상을 말한다²⁾. 이는 陰이 하강하지 못하고 반대로 상승하여 생기는 병증으로, 亡陰證은 다시 身熱頭痛泄瀉와 身寒腹痛泄瀉를 主症으로 하는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身熱頭痛泄瀉는 猪苓車前子湯이나 荊防瀉白散을 사용하고, 身寒腹痛泄瀉는 滑石苦參湯이나 荊防地黃湯을 사용한다³⁾.

상기 患者는 1년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體重減少, 無氣力, 泄瀉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병원에서 검사상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고 치료가 호전되지 않아 2002년 8월에

2) 亡陰者 陰 不下降而 反爲上升則 亡陰也

陽盛格陰於下則 陰爲陽壅 不能下降於膀胱 上逆背脊而 內通膈裡故 腸胃畏寒而 泄下也

3) 少陽人 身熱頭痛泄瀉 當用猪苓車前子湯 荊防瀉白散 身寒腹痛泄瀉 當用滑石苦參湯 荊防地黃湯 此病 名謂之 亡陰病

본원에 내원하였다. 내원당시 성격은 예민한 상태였으며, 體重減少, 無氣力, 泄瀉등으로 인하여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다. 서양의학 검사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며, 증치의 학으로 보아 脾陽虛로 진단하여 藜苓白朮散에 薏苡仁을 去하고 利氣시키는 陳皮, 白豆蔻, 藿香, 防風, 升麻를 가미하여 투여하였다.

證治醫學에서는 面色萎黃, 四肢無力, 肌肉消瘦, 納少便溏은 脾陽虛에 해당되며 어는 소화관 흡수력의 저하와 함께 전신적인 氣虛의 症候를 수반하는 상태로 대표적인 처방으로 補氣健脾시키는 藜苓白朮散을 들 수 있다.2) 藜苓白朮散은 『東醫寶鑑 內傷 雜病篇』에 “治 內傷脾胃虛弱, 飲食不振, 或吐瀉, 凡大病後, 調助脾胃, 此藥極妙”라 하여.3) 人參, 白朮, 白茯苓, 甘草는 補神益氣시키며, 山藥, 白扁豆, 薏苡仁, 蓮子肉, 砂仁은 補脾止瀉시키며, 桔梗은 宣肺祛痰, 排膿利氣시키는 효능이 있어 脾胃虛弱으로 나타나는 만성소화기질환, 만성설사에 널리 응용할 수 있는 처방이다.4)5)6)

본 환자에게 사용한 처방한 藜苓白朮散 加味方은 白朮 10g 白茯苓 6g 山藥炒 6g 人參 4g 黃砂仁炒 4g 藿香 4g 炙甘草 4g 桔梗 4g 白豆蔻 4g 陳皮 4g 白扁豆 4g 香附子 4g 蓮子肉 4g 升麻酒洗 2g 原防風 2g 山楂 4g 神麩 3g 麥芽 3g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약제의 구성을 보면 性이 溫한 少陰人 약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상기환자는 藜苓白朮散加味方을 투여한 지 3일만에 복용 후 腹痛과 함께 심한 水樣便을 호소하였다.

下腹部 痛症과 腹鳴을 동반한 水樣性 泄瀉를 하였으며, 횡수는 5-6회/1일이었다. 泄瀉 후 全身 無力感이 심해졌으며, 煩熱感을 호소하였다. 脈은 沈細數滑, 舌苔는 舌淡紅苔薄黃

한 상태였다. 이에 저자는 少陽人으로 의심되는 환자에게 온난한 약을 쓴 결과 少陽人의 盛한 陽을 더욱 盛하게 하여 少陽人 亡陰證을 더욱 악화시켜 설사가 심해진 것으로 보고 다시 少陽人 亡陰證중 身寒腹痛泄瀉로 판단하여 荊防地黃湯을 2일분 투여하고 다시 내원하라고 하였다.

少陽人 泄瀉에 대하여 李濟馬는 『壽世保元』에서 “李子健의 상한십권(傷寒十勸)에 말하기를 傷寒에 배가 아픈 것도 熱證도 역시 있으니 가벼이 온난한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또 말하기를 傷寒에 저절로 泄瀉가 나는 것은 마땅히 陰證인지 陽證인지 보아야 할 것이니 예사로이 온난한 약이나 설사를 막는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少陽人에서 온난한 약을 쓰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반룡산 노인이 말하기를 소양인의 몸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설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豬苓車前子湯이나 荊防瀉白散을 쓸 것이며 몸이 차고 배가 아프며 설사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滑石苦參湯이나 荊防地黃湯을 써야 한다. 이러한 병을 亡陰病이라 한다”고 하여 滑石苦參湯이나 荊防地黃湯을 쓸 것을 말하고 있다.”

荊防地黃湯은 소양인 表病 虛勞證에 쓰이는 처방으로 荊防敗毒散에 손상된 表陰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腎陰을 補하는 熟地黃 山茱萸를 가하여 만든 처방으로, 熟地黃 山茱萸 茯苓 澤瀉 各 2錢 車前子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各 1錢으로 구성되어 있다.7)

東醫壽世保元 新定方의 荊防地黃湯 方解에서는 荊防地黃湯의 처방구성을 살펴보면 熟地黃과 山茱萸의 補陰之劑가 들어 있어 補陰을 통해 泄瀉를 치료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荊芥 防風 羌活 獨活 俱是補陰藥 荊防 大清胸膈散 風 羌獨 大補膀胱真陰라 하여 荊芥 防風은 신

4) 李子健傷寒十勸論曰傷寒腹痛亦有熱證不可輕服溫藥又曰傷寒自利當觀陰陽證不可例服溫藥及止瀉藥
5) 盤龍山老人論曰少陽人身熱頭痛泄瀉當用豬苓車前子湯荊防瀉白散身寒腹痛泄瀉當用滑石苦參湯荊防地黃湯此病名謂之亡陰病

체 전면의 胸膈을 맑게 하여 散風하고 羌活, 獨活은 膀胱의 眞陰을 補한다고 하였다. 또한 活套를 높이면 腹痛 痞滿 泄瀉를 막론하고 虛弱者는 수백첩을 사용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어 少陽人에게 다양하게 활용하며 장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亡陰證이 심한 경우에 荊防地黃湯에 石枳를 四錢 가한 것이 地黃白虎湯보다 효과가 있다고 한 것을 보면 荊防地黃湯을 활용 빈도나 적응증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8)

2002년 8월 10일 환자가 荊防地黃湯을 복용한 후 내원하였을 때는 대변은 여전히 水樣便이었으나, 횡수는 3-4회로 줄었으며, 下腹部 痛症과 腹鳴症狀도 감소하였다. 煩熱感은 소실되었다. 脈은 沈細滑, 舌淡紅苔薄白하였으며, 荊防地黃湯을 다시 10일분 투여하였다. 8월 22일에는 대변양상이 水樣便에서 軟便으로 바뀌었으며, 횡수는 2-3회/1일로 줄었다. 설사에 동반된 복통과 복명증상은 소실되었다. 무기력 상태는 약간 호전된 상태였다. 脈은 沈細滑, 舌淡紅苔薄白하였다. 9월 2일에 내원하였을 때는 대변은 정상변상태였으며, 1-2회/1일이었다. 소화는 되지 않았을 때 가끔씩 軟便을 보았다. 무기력증상은 오전에 약간 느낄 수 있었다. 체중은 39 kg으로 증가하였으며, 腹診시 中脘部位 壓痛이 소실되었다. 脈은 沈滑하고 舌紅苔薄白하였다. 이후 9월 14일에는 大便은 정상이었으며, 무기력 증상도 거의 호소하지 않았다. 식사량은 2/3 공기로 늘었으며, 체중은 40kg으로 증가하였으며, 10월 7일에는 大便은 정상으로 1회/1일정도 배변하였으며, 무기력증상은 소실되었고, 체중은 41kg으로 증가하였다.

이 환자의 치료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환자를 證治醫學에서 脾陽虛로 판단하여 補脾시키는 약을 투여한 결과 少陽人에게 온난한 약을 쓴 것이 되어 少陽人의 亡陰證의 증상인 泄瀉가 더욱 심해진 상황으로 少陽人 亡陰證의 身寒腹痛泄瀉에 쓰이는 荊防地黃湯을 투여하여 泄瀉, 無氣力 등의 증상이 정상의 상태로 회복이 되면서 체중 증가도 점차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少陽人 體重減少, 無氣力, 泄瀉등의 증상을 호소한 亡陰證 환자에게 荊防地黃湯을 투여하여 임상증상의 호전을 확인한 증례가 있어 이와 같이 보고하는 바이다.

參 考 文 獻

1. 송일병 외. 사상의학. 1판. 서울: 집문당. 1997: 197-204, 385-396, 465-477
2. 문석재 문구 원진희. 신비계내과학. 2판.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비계내과학교실편: 원광사. 1996: 90-91
3. 許俊. 東醫寶鑑: 한미의학.: 697
4. 陣師文. 太平惠民和劑局方. 旋風出版社. 臺北. 卷 73. 1975: 11
5. 北京中醫學院. 漢醫學臨床病理. 成輔社. 서울. 1983. 200-202
6. 方藥中. 實用中醫內科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8: 240-241
7. 최지숙, 김경요. 소양인 脾受寒表寒病論의 病證 및 藥理에 대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1998:10(2):61-67
8. 이의주 東醫壽世保元 太少陰陽人의 病證論에 관한 研究 2000년 경희대 p 88 99